

C1001 안정형(유니버설)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안정형(유니버설)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우리글로벌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안정형(유니버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008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0.04
운용기간	2023.04.01 ~ 2023.06.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주로 CD, 단기 국공채, 특수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자본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안정형(유니버설)	자산 총액 (A)	6,760	6,709	-0.75
	부채 총액 (B)	6	2	-72.07
	순자산총액 (C=A-B)	6,754	6,707	-0.69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4,347	4,286	-1.40
	기준가격 (E=C/D × 1000)	1,553.64	1,564.79	0.72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2분기 미국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음에도 한국 기준금리는 동결되었고, 글로벌 금리 상승 추이에 따라 국내 금리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5월 FOMC서는 25bp 추가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로는 국내 및 미국 모두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 국내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표 호조 및 물가 지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리 상승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국고 3년과 10년은 각각 분기말 3.656%(+36.6bp), 3.661%(+30.1bp)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분기 국고채 3년/10년 장단기 스프레드는 큰 움직임이 없었으며, 6월에 축소되어, 6월 분기말 +0.5bp 수준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큰 폭 상승하였고, 상대적으로 중장기를 상승폭이 컸음에 따라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7월 금통위에서는 동결과 FOMC에서는 25bp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FOMC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여부 및 그 시기에 따라 글로벌 및 국내 금리는 재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고 3년 금리가 이미 3.70%대 수준까지 상승하였고, 새미물 금고와 PF 우려 등으로 인하여 국내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시장 금리는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 물가 안정에 기여도가 큰 유가가 재차 상승폭이 커지고 미국이 연내 두번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금리는 재차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단기 스프레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추정 이자율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3년/10년 스프레드는 -20bp~20bp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금통위와 FOMC, 유가 움직임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재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안정형(유니버설)	0.72	1.70	2.42	2.76
(비교지수 대비 성과)	(-)	(-0.20)	(-0.32)	(-0.35)
비교지수(벤치마크)	0.72	1.90	2.74	3.11

* 비교지수(벤치마크): 동안채 3개월·1년 X 60% + 은행채AAA(산금채) 3개월·1년 X 3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	-------	-------	-------	-------

안정형(유니버설)	2.76	3.37	3.70	6.6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5)	(-0.53)	(-0.84)	(-1.79)
비교지수(벤치마크)	3.11	3.90	4.54	8.48

* 비교지수(벤치마크): 동안채 3개월·1년 X 60% + 은행채AAA(산금채) 3개월·1년 X 3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65	-	-	-	-	-	-	-	7	-5	67
당기	-	42	-	-	-	-	-	-	-	12	-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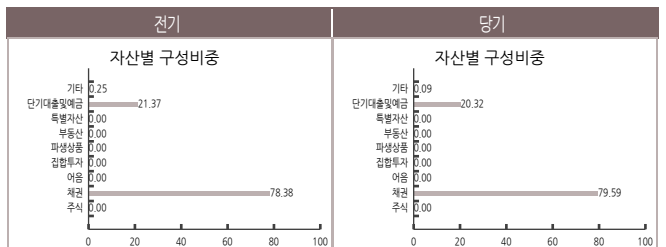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5,340	0	0	0	0	0	0	0	1,363	6	6,709
(1.00)	(0.00)	(79.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32)	(0.09)	(100.00)
합계	0	5,340	0	0	0	0	0	0	0	1,363	6	6,709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국민주채(종18-07)	48.63	6	
2	단기상품	KDB지금융채(REPO)매수(20230630)	17.89	7	
3	채권	국민주채(종18-08)	16.16	8	
4	채권	국고채(저3490-2309)	14.80	9	
5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2.43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국민주채(종18-07)	3,000	3,262	대한민국	KRW	2018-07-31	2023-07-31	N/A	48.63	
국민주채(종18-08)	1,000	1,084	대한민국	KRW	2018-08-31	2023-08-31	N/A	16.16	
국고채(저3490-2309)	1,000	993	대한민국	KRW	2007-04-17	2023-09-10	N/A	14.8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REPO매수	하이자산운용	2023-06-30	1,200	3.87	-	대한민국	KRW
예금	국민은행	2005-02-10	161	2.99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사장	44	74	2,337,615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41	74	2,337,615	-	-	2120001220
김태현	차장	40	74	2,337,615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31	74	2,337,615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	--------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1	0.02	1	0.02
판매회사	3	0.05	3	0.05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5	0.07	5	0.07
기타비용	0	-	0	-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2895	0.0031	0.2926
당기	0.2895	0.0035	0.293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음

▶ 주요 비상대응계획

- 개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상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정형(유니버설)'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